

# 문학 개념어 정리

- 2016학년도 ~ 2020학년도

평가원 기출 선별

제작자 : 심프

# 1. 자료 소개

이 자료는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4~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풀이 태도를 갖췄다고 볼만한 학생들도 문학 개념어를 묻는 문제에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개념이 덜 잡힌 상태에서 일반적인 감상 방법만 배운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자체를 낫설어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죠. 개념어 공부를 하면됩니다!

그럼 모든 개념어 문제들을 빠짐없이 맞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념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맞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개념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출제된 작품에서 개념어를 묻는 문제를 살피고,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 직접’ 기출 지문에서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식 익히기

## ② 실제 지문에 적용해보는 연습

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문학 개념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여기고 심하면 우습게 여기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하던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에서 말한 ①, ②, ③번을 만족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기출에서 등장한 다양한 개념어들을 담았고, 그런 개념어들은 지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개념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지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담긴 해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자료는 ‘정확한 개념어의 사전적 정의’를 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전적인’ 선지 판단에 초점을 맞춘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부적합한 자료입니다.

실전에서의 애매함을 최대한 줄이고 ‘뇌절 방지용 행동 양식’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2. 자료 사용법

### 가. 주 대상 - (개념이 약한)3등급 ~ 5등급

1. 학습지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고 해당 개념을 확인한다.
2.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자료에서 말하는 판단의 행동 양식에 주목한다.
3. 모르는 개념이라면 스스로 정의를 찾아보고, 필기한 후 해설지를 확인한다.
4. 나만의 개념노트를 만들고 해설지와 함께 다독(多讀)한다.

### 나. 1등급 ~ 3등급

해설지를 프린트하여 다독(多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보충한다.

### 다. 5등급 미만

다른 개념 강의 및 학습 도서를 기반으로 이 자료를 병행한다.

\*자료에 대한 질문은 쪽지, 기파급 카페로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말 그대로 화자의 정서나 태도, 반응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 보고 있습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 소리와 관련된 것!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연달아서 서술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말했듯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닌 선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판단은 꼭 하셔야겠죠?

- ③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한자어와 같이 어려운 말들로 표현하는게 현학적 표현이에요.

**\*현학적 :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

- ④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관찰자 시점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넣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 방식이어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말도 성립하겠습니다.

- 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이야기(외부) 속의 또 다른 이야기(내부)가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입니다.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사건의 장면을 일일이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나 인물의 발화 등으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래는 해당 문제가 출제된 지문 「홍계월전」의 일부입니다.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 밑줄처럼 평국이라는 인물을 의원이 살핀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직접 서술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자와 의원의 대화로 결과만 제시해줍니다. 그럼 의원이 평국을 살피는 그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그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인물의 생김새나 옷차림 등의 외양을 묘사해주어야 합니다!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 위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평국의 얼굴이나 체격과 같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B 공통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그냥 유사한 시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점차 그 성격이 강화되는 느낌으로 변주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유사한 시구의 의미를 강화해주는 미사여구가 점점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영상으로’와 ‘밀고 간다’와 같은 구절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해주는 미사여구(영상 5도 영상 13도, 막 밀고 올라간다)가 붙어서 그 뜻을 강화하는 식으로 변주합니다.

→ 점층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었죠?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노골적인 감정의 노출이 드러나지 않고 덤덤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지 확인합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입니다. 여기서는 노골적인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 반응 따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피고 꽃이 진다와 같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화자의 흥취라던지 그런 주관적 반응(정서, 태도, 감정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조적 태도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 관조적인 태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뿐, ‘시’라는 서정 장르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는 숨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에서는 ‘고독’이라는 정서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다만 관조의 핵심은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④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색채어 그 자체나 색깔을 상징하는 단어를 찾읍시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 신사고 고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 2」 중 일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색채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피’라는 소재를 통해 ‘붉은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역설이죠?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모순적인 말을 찾아봅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대표적인 역설법의 예시입니다.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모순적이죠?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 갔는데 안 갔다.. 이상합니다. 또,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와 같은 대목도 역설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기 보다, 어떤 행동을 같이하도록 유도하거나 어떤 것을 권유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정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유형 어미로 실현되기도 해요.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로 받아들이시면 충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기쁨’과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 추상적 :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관념적 = 추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 즉, 이념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 등이 되겠죠?

→ ‘실제적 문제 ↔ 관념적 문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재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돈의 부족이라는 가난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 주관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해주는지 확인해봅시다.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1인칭 서술 시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 자기 고백적 진술은 반성적 자세와 비슷한 말로 받아들여서도 충분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성찰과 같은 특정 태도를 드러내는지 확인해봅시다.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그해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는 층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려르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범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잎 걸쳐 안방 시렁에 엮어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여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꼬박데기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처넣어 부엌의 무쇠솥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독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 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였다.

(중략)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 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에 분분히 내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밀 일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으리라.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리를 노래하는 근사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맨발로 춤추는 풀밭의 무희도 될 수 있었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과 영혼의 문제, 환생과 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납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

늘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번 썩당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리 치료를 돕는 자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엇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재가 계속되어 희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티브이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도도]가 무엇인가를 묻자 아들은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에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에나 장례에 꼭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오정희, 「옛우물」 -

→ 해당 문제가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②번 선지가 실제로 정답이에요. 보시다시피 일단 '나'라는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전부 '나'가 겪은 일들을 제시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 진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학년도 수능 A형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B공통

①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반복과 대구.. 기억나시죠?

② ㉡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행위와 관련된 음성상징어!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 공중에서 ‘뚝’ 떨어지고 ‘빙빙’ 돌아오고 목이 ‘찢겨’ 내려 박힌다는 점에서 음성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태어라고 할 수 있어요.

③ ㉢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욱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 네, 호랑이가 도망가는 것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⑤ ㉤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다 기억나시죠? 서술자의 개입인데 거기에 서술자의 가치판단이나 주관같은 게 드러나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6학년도 수능 B형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반복은 말 그대로 특정 시어나 유사하거나 같은 시구가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연쇄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꼬리를 무는 거라고 했었죠? 이번엔 기출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집일을 곳치거든 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 ②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된 지문인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①과 ②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꼬리를 물며 ‘연쇄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직유는 ‘A같은 B’의 꼴이어야 합니다. 역시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흘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곱튼 얼굴리 편히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흘셔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험려니와  
 도로혀 헤여히니 마누라 타시로다

→ 같은 지문의 일부입니다. 밑줄을 보시면 ‘옥 같은 얼굴’이라는 직유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옥)같은 B(얼굴)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대구법 또 나오네요!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회고적의 사전적 정의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고적인 정서라고 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는 장면이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문학에서 '회고적인 정서'라는 말은 성찰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셔도 충분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본다는 의미이니깐요.

\* 백석의 경우 회고적인 심상을 통해 성찰뿐만 아니라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로, 추억의 측면. 과거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는 경우엔 그리움과 같은 정서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시에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화자가 '부르는' 대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봅시다.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씨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①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일부입니다. (가)에서는 '산이여'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부르는 청자가 산임을, (나)에서는 '그대여'라는 표현에서 청자가 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둘 다 '명시적으로' 드러났죠?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외부의 대상을 먼저 언급한 후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다)

- ①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피었다  
무정(無情)은 화류(花柳)도 때를 아라 피엿거든 /  
 ②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17수>

→ 실제 출제된 지문의 예시입니다. ①에서는 바깥의 경치를 묘사하고 ②에서 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선경후정’이에요.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화자의 정서가 대상의 정서랑 같은지 봅시다. 특히 대상이 사물인데 슬프다 기쁘다 이런 정서가 드러나면 감정이입이라고 볼 확률이 높아요. 물론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감정 이입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감정 이입은 대상과 화자가 동일시되어 같은 감정을 느끼는 반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황조가를 통해 또면 화자인 유리왕은 꾀꼬리를 보며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꾀꼬리는 자신과 다르게 짝이 있고, 행복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반대되는 감정을 지닌 대상을 드러내어 화자의 정서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니 꼭 구분지어 놓으세요!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하는지 봅시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보자마자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해요. 두 개가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 자체 뿐만 아니라 계절과 관련된 소재도 찾아봅시다.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네..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을 연달아서 서술... 엔드게 임같은 것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정답이 아닐 것이라는 점까지 이야기했었죠?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3인칭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나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인 작품은 거의 없어요.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요약적 진술도 질리게 했죠? 사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 말에 모순이 있는 것! 예시 기억나시죠?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대표적인 역설법의 예시입니다.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모순적이죠?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 갔는데 안 갔다? 이상합니다.

→ 또,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와 같은 대목도 역설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대상을 여러 번 불러야 합니다. 100프로 단정할 순 없겠지만, 구체적인 청자이기도 하겠죠?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①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 실제 해당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가)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플라타너스’라는 대상을 여러번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역설과 헛갈리지 않게 주의합시다. 역설은 모순, 반어는 반대!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어야 해요.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준다.

→ 관조적 자세는 아까 했었죠? 그래도 예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 노골적인 감정의 노출이 드러나지 않고 남일 보듯이 덤덤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지 확인합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입니다. 여기서는 노골적인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 반응 따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피고 꽃이 진다’와 같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화자의 흥취라던지 그런 주관적 반응(정서, 태도, 감정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관조적 태도’입니다.

→ 반성은 말 그대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성찰적 태도와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자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였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기술의 파급효과 카페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

→ 본문에서 화자는 아시안의 젊은 남녀를 뻔히 쳐다봅니다. 그들을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그게 '낯짝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한 일을 반성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화자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구요.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주 서술 대상이 누군지, 혹은 사건의 서술을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 하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 역시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는 말은 정답 선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 2018학년도 수능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역시나 화자가 말을 걸거나 부르는 청자가 제대로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③ 지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활유법'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무생물이 생물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물론, 의인화도 생명력을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 역시나 실제 출제된 문제의 지문 중 일부입니다. (가)에서는 '노래'라는 무정물(무생물)이 '강 건너 갔'다고 표현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유정물)처럼 표현했습니다. (나)는 '묘비'라는 무생물이 '곳곳이 견디며 살아 남'는다고 표현하여 살아있는 것(유정물)처럼 표현했네요.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부여한 예시이자 활유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전에 의인과 활유에 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억이 혹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활유법 :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여기서는 사실상 반어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조'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수사법을 갖고 '어조'로 묶는 경우에는 그냥 그 수사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설적 어조 = 역설법 확인하기', '영탄적 어조 = 영탄법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요!

→ 반어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반대로 말하는 것!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문학 개념어라기보단 어휘력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두었습니다. 존경심 +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외감 :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서술하는 사건을 자주 바꾼다는 말입니다. 역시나 정답으로 출제될 확률이 낮은 선지입니다.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 '과거 → 현재' 순이 정상적인데 이게 뒤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 과거'처럼요! 역순행적 구성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봅니다. 소리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악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일부입니다. 악새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꽃불'을 지른다고 표현했어요. 보이는 이미지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꽃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의미해요.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시선을 옮기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는지, 시선을 이동하는지도 확인해야겠네요.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특정 시구가 '똑같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감정이입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는 화자가 갖는 대상에 대한 인식(정서·태도·반응 등)에 기반해요.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혼잣말 하듯! 청자의 유무부터 판단해야합니다.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 '삽화'는 사이에 끼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흐름을 지연시킨다'라는 선지는 역시나 정답일 확률이 낮아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 실제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 때문에 전개가 느려지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겠죠?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청자의 유무부터 판단하고, 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지, 그리고 청자가 거기에 반응하는지까지 체크합니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음성상징어! 다들 아시죠?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풍자가 드러나는지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수사법과 어조를 묶는다면, 해당 수사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자와 해학에 대해서도 이전 자료에서 언급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인물의 특정 심리가 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치 판단과 같은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질어서 ㉠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은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은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헤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인 현금이 맞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은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훑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첩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

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이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라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돌친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거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멧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기출의 파급효과 카페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

→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심리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놓인 처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곧 판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2019학년도 수능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갈등처럼 대립되는 느낌이 들면 허용 가능합니다. ‘VS 구도’처럼요.

(나)

###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sup>㉠</sup>\*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리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쿵쿵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미를 끌리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sup>㉠</sup>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sup>㉠</sup>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sup>㉠</sup> : 어디 취직을 해야지.

###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머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기술의 파급효과 카페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쭈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예요.

####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해당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일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영호’와 ‘철호’가 먹고 사는 방식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웃기게 표현하는지 보면 됩니다.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갈등을 다각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되긴 어려운 선지입니다.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간접 제시’를 묻고 있습니다. 특정 행위에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지문에서는 철호가 소리를 지르거나 영호가 넥타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에 인물의 심리(내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봅시다.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쉽게 말해서, ‘일관된 스토리’가 있는 사건을 들려주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사건이 ‘아무말 대잔치’가 아닌 이상 충분합니다.

\* 서사 :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이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공감각적 심상.. 이제 다 아시겠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 네 까마귀 ‘울음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이걸 ‘검정 포대기’라는 시각적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하네요. 직유법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말은, 서술자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사건만 서술하고 있으면 됩니다. 객관적 서술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 선 인적이기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댁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운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 해당 문제가 출제된 지문의 일부입니다.(선지가 묻는 [A] 부분이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서술자가 지금 소설의 상황 자체를 전달하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해 주관은 따로 드러내지 않고 있죠?

→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은 말 그대로 ‘직접 서술’ 그 자체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어떤 행위 등이 아니라 ‘직접’ 대놓고 단어를 쓰면서 드러내면 허용 가능합니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딱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 마찬가지로 해당 선지가 묻고 있는 [B]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죽고자 했던 인물의 심리를 대놓고 서술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명령형 어미부터 찾읍시다.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합시다.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부디 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규(空闌)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호고 부디 한 말을  
전혀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ㄱ읍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 외기러기를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흔히들 말하는 시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글자를 일부러 맞춤법에 맞지 않도록 변형했는지 확인합시다.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점점 정도가 강해지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표현이 ‘점층’이었죠? 가볍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을 모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품이 화자나 인물의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심리적 거리감을 먼저 판단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물리적인 거리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인물의 겉모습을 묘사하는지 확인해봅시다. 역시나 많이 본 개념어이니 예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 ‘세밀한’에는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밀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꿩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빈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편집자적 논평인지 확인합시다.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말은 서술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호’감을 보인다는 건 서술자의 주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역시나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선지가 편집자적 논평을 물어보는지 캐치할 수 있다면 편하겠죠?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화자가 자기 심리나 정서를 말하다가 외부의 대상을 포착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역시나 이런 선지는 답이 되기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 했었죠? 갈등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역순행적 구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셔도 괜찮습니다.

→ 만약 이런 선지를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입체적’이 아니라 장면의 빈번한 교차가 있는지(선지의 다른 부분) 확인합시다.